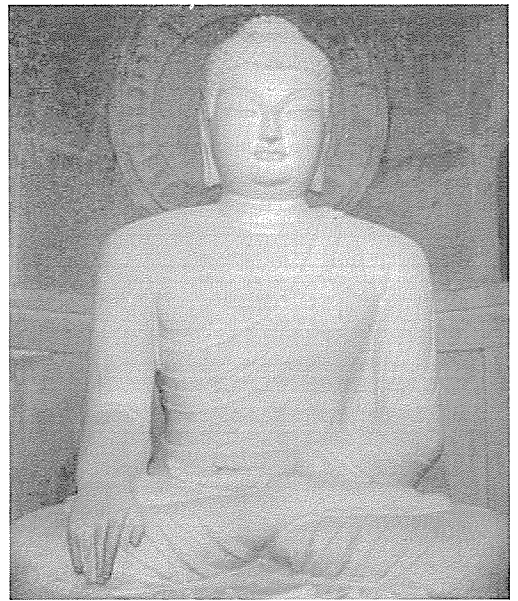


# 자랑스런 「세계문화유산」 석굴암

국보 24호인 석굴암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보물이다. 석굴암은 화강석을 다듬어 석굴을 만들고 그 위에 흙을 덮은 인공 석굴인데 이는 어떤 나라의 석굴과도 다른 귀중한 문화재이다.



석굴암을 방문한 사람들은 석굴암이 과연 세계 문화유산에 지정될 가치가 있는냐고 의문을 표시하기도 한다. 외국의 문화유산에 비하여 볼 것도 많지 않고 규모도 너무 작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석굴암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우리나라 정부가 심의위원들을 매수해서 억지로 승낙을 받은 것이라는 불신까지 있다. 88올림픽이 끝나자 정부에서 한국 유산을 보다 홍보하기 위해 편법을 썼다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석굴암이나 종묘가 유럽에 있었다면 세계 문화유산으로 신청이라도 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우리 것만이 최고라는 헛된 자부심도 문제가 있지만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유적조차 한국에서 심의위원들을 매수하여 지정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에는 아연할 수밖에 없다.

## 7백35년 신라 김대성이 세운 인공석굴

영똥한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는 석굴암(국보 제24호)은 경주시 진현동 토함산 산자락 해발 5백65미터에 자리잡고 있는데 신라의 김대성이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 735년에 세운 것이다.

석굴암은 원래 석불사라는 이름의 독립된 절이었으나 임진왜란 이후 불국사에 예속되었고 1910년경부터 일본인들에 의해 석불암 대신 석굴암으로 불리게 되었다. 석굴암에는 본존불을 포함하여 모두 40개의 불상이 놓여져 있었는데 제일 앞에 있는 좌우 첫번째 감실 2개의 불상이 일본인들에

반출되었기 때문에 불상이 놓여 있지 않다. 그러므로 현재 석굴암에 안치되어 있는 불상의 총 수는 38구이다. 중앙의 본존불은 높이가 3.4미터에 이르며 대좌까지 합쳐 5미터나 되는 큰 불상으로 신체의 비례가 알맞고 각 부분이 부드럽고 세련된 솜씨로 조각되어 있다.

신라의 석굴암이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지정받은 것은 석굴암에는 외국에 있는 대형 건축물이나 문화유산들에 비교해 결코 떨어지지 않는 독창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 석굴암의 구조는 다른 어떤 나라의 석굴과도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우선 석굴암은 화강석을 다듬어 석굴을 만들고 그 위에 흙을 덮은 인공 석굴인데 이것은 고대 인도나 중국에서 자연석을 뚫고 굴을 만든 것과는 차이가 있다. 중국과 인도의 것은 건축물이라기보다 조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신라의 석굴암은 명백히 건축물인 것이다.

원래 열대지방인 인도에서는 부처님을 서늘하게 모시기 위해 기원전 100년경부터 바위에 굴을 파내어 그 속에 탑을 세우기 시작했으며 이 풍습이 4세기경에 중국에 전해졌다. 이러한 석굴 신앙이 7~8세기 초에 우리나라에 전해지면서 단석산 신선사 마애석불, 군위삼존석굴과 같은 석굴사원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경주지역에는 큰 바위산이 없었기 때문에 신라의 예술가들은 새로운 방법을 창안했다. 즉 산을 파내어 굴을 만들고 조각된 돌들을 조립한 후 흙을 덮어 중국이나 인도의 석굴사원처럼 보이도록 한 것이다. 세계적으로 인공으로 만들어진 석굴 형태에 예술적으로 조

각된 불상들을 배치한 곳은 오직 석굴암 뿐이다.

석굴암이 외국의 문화유산과 당당하게 겨룰 수 있는 것은 석굴암만이 갖고 있는 또 다른 건축상의 특수성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해 그것은 바로 재료이다. 석굴암은 화강암으로 만들어졌다. 전 세계인들로부터 그 정교함과 화려함 때문에 찬사를 받고 있는 스페인의 아람브라 궁전에 사용된 조각품들의 재료는 놀랍게도 석고이다. 석고판을 정교하게 찍어내어 천장이나 벽에 붙인 것으로 시공 기간도 고작 3~4년에 지나지 않는다. 손재주 있는 사람의 디자인에 따라 얼마든지 손쉽게 제작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영국의 캔터베리 대성당이나 프랑스 파리의 노트담성당의 정교한 수많은 조각상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경탄한다. 그러나 세계인들이 찬탄하는 조각들은 석회석이 원재료이다. 석회석은 경도에 있어 활석 다음으로 무른 돌로 조그마한 조각칼로 비누를 조각하는 것처럼 쉽게 정교한 인물상들을 조각할 수 있다.

### 섬세하고 우아한 화강암 불상

이탈리아를 방문한 사람들은 수많은 조각상들의 아름다움과 반들반들한 표면처리를 보고 놀란다. 조각상이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으며 옷의 주름이 실제의 옷을 입은 것과 같다고 한다. 그러나 그런 조각상도 재료가 대리석이라는데 비밀이 있다. 대리석이란 석회석과 거의 같은 성분으로 다소 경도가 높은 돌이다. 물론 대리석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조각상의 예술적인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제작의 난이도에 있어 화강석에 비해 비교적 쉽다는 말이다.

동남아에 있는 수많은 불상과 불탑에 정교한 인물상들이 조각되어 있는 것을 보고 놀라는 사람들이 많은 모양이다. 겉보기에는 매우 단단한 돌처럼 보이므로 그들을 조각하는데 상당한 공이 들어갔음이 틀림없다고 단언하기 쉽상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대부분 진흙과 같은 재료로 만든 것이다. 미술 시간에 석고로 모형을 만들 듯이 진흙으로 조각상들을 정교하게 만든 것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진 것이다.

이에 비하여 석굴암은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화강암은 경도가 높아 섬세한 조각을 하기가 아주 힘든 재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굴암의 모든 불상은 그야말로 완벽할 정도로 섬세하고 우아하다.

화강암으로 조각할 때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화강암의 재료가 균일하지 않다는 점이다. 화강암은 장식, 운모, 석영 등 서로 다른 재료로 되어 있으므로 예상치 못한 결 때문에 쪼개질 수가 있다. 마무리 단계에서 실수를 하여 조그마한 부분이 떨어져 나간다면 어김없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면 손금과 발바닥 금이 있는 것은 물론 연화문의 꽃무늬가 사실적으로 조각되어 있다. 섬세하게 조각된 연화문 무늬 하나만 떨어져도 다시 조각해야 하는 것을 감안할 때 조각기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다루기 매우 어려운 화강암으로 섬세하고 조심스러운 제작 과정을 거쳐서 완벽한 배율과 아름다움을 갖도록 만들었으므로 석굴암이 비록 작은 규모이지만 세계 어느 문화재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한 석굴암은 설계 뿐만 아니라 시공면에서도 탁월한 재능을 보여준다. 반경 12자의 공룡형 천장은 화강석을 둥근 띠 모양으로 묶어 5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띠 둘레는 각각 10개의 2중 곡면 부재로 묶었는데 아래쪽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점차 띠의 폭이 줄어들며 정점에 연꽃 문양으로 된 1백25개의 돌을 올려놓았다. 아랫부분의 2개 층을 제외하고는 띠를 묶을 때 돌들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연접부에 썸기들을 수평으로 박았다.

썸기형 돌을 삽입하여 반 모멘트를 조성시켜 조립식으로 구형 방막을 건설한 것과 각 부재들의 이음줄이 세로면에서는 공룡의 원심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공룡 표면상에서는 정확하게 자오선을 따라 형성되도록 한 것은 신라의 석공들이 높은 구조역학적 지식을 갖고 석굴암을 축조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는 돌 부재가 중심축 방향으로서는 주로 압축력만이 작용하게 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부재의 무게를 줄이게 하는 합리적인 구조이다. 천장 덮개 돌은 손잡이 없는 찻잔을 거꾸로 얹어놓은 형상으로 연화문 지름 2.47미터, 높이 1미터, 바깥쪽 지름 3미터나 되는 크기로 무게가 차그마치 20톤이나 된다.

석굴암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선정될 당시의 심사위원들이 석굴암을 직접 보고 나서 극찬한 것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외국에서 본 거대한 건축물과 정교한 조각품들을 보고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다. ⑤7

李 鐘 鎬 (피라미드워즈 전문위원/파학저술가)